
정인혁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말에는 그 민족의 창의력이 깃들어 있다. 그렇다면 의학 용어는 의사들이 만든 생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는 이 시대 우리의 의학 수준과 생각과 창의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용어를 쓰면서 더욱 다듬고 가꾸어서 의학 용어가 이 시대 우리 의학의 거울로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2001년에 나온 『의학용어집』 넷째 판의 머리말 일부다. 일본식 용어 일색이었던 의학 용어를 상당 부분 우리말로 바꾼 이 용어집은 우리말 사랑의 실천적 증거로 의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용어집을 만드는 책임을 맡았던 연세대 의대 정인혁 교수는 2004년 이 업적을 인정받아 스물여섯 번째 외솔상 실천 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외국에서 수입된 학문을 배울지라도 교육만큼은 우리말로 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10여 년 동안 우리말 의학 용어로 강의할 함으로써 우리말 사랑을 실천해 온 정인혁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답변자: 정인혁(연세대 의대 교수)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06년 12월 7일

곳: 연세대 의대 정인혁 교수 연구실

장승옥: 서가를 보니 국문과 교수 연구실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국어학 분야의 책들이 많은데, 다 읽으신 책들인가요?

정인혁: 집에도 책들이 더 있어요. 많이 모아 놨지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도 있지만, 대개는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지요.

장승옥: 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가요?

정인혁: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는 전문 용어라 하면 대부분 일본 것을 그대로 들여다 썼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말을 써야 한다, 우리말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뒷받침이 될 만한 것을 찾느라 책을 많이 봤지요. 요즘은 용어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있는 말만 따다가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데, 없는 말을 만드는 거니까 시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쓰임새에 따라서 이런 말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우리말 쓰임새에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책도 주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추려서 보지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 의사들이 선뜻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어학이나 언어학 전문서적들을 인용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쉽게 수긍들을 하거든요.

장승옥: 다른 분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정인혁: 가장 흔한 이유는 바꾸기 싫다는 것이지요. 특히 말이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강합니다. 물리학에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던 말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말을 쓴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라서 우선은 반대를 하고 보는 것이지요.

장승옥: 아까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작업,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혁: 제가 교양강좌 같은 데서 용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의학 발전과정에서 생긴 표절 사례입니다. 남의 그림을 베끼는데 완전히 똑같이 베끼거나 아주 일부만 바꾸거나 오른쪽 왼쪽만 바꾸거나 배경만 바꾸거나 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함께 보여주고 이런 것이 표절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쓰는 용어를 보여줍니다. 일본 용어와 우리 용어를 나란히 보여주고 이것도 표절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쓸 수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쉽게 납득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교육적인 면, 그러니까 쉬운 용어를 쓰면 기억하기도 쉽고 연상하기도 쉬우니까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을 쓰는 것을 언어의 민주화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의사들이, 다른 전문 분야도 비슷하지만, 환자와 대화를 해야 하니까 섬처럼 떨어진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게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장승욱: 어떤 것이 주체성인가요?

정인혁: 자기 말을 놔두고 남의 말을 쓴다는 것, 스스로 뭔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해 놓은 것을 표절해 쓰는 데 익숙해져서 관습처럼 쓰고 있는 것이 우선 주체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물고기를 예로 들자면 송사리처럼 작은 것도 스스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듯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다들 언짢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장승욱: 언제부터 용어를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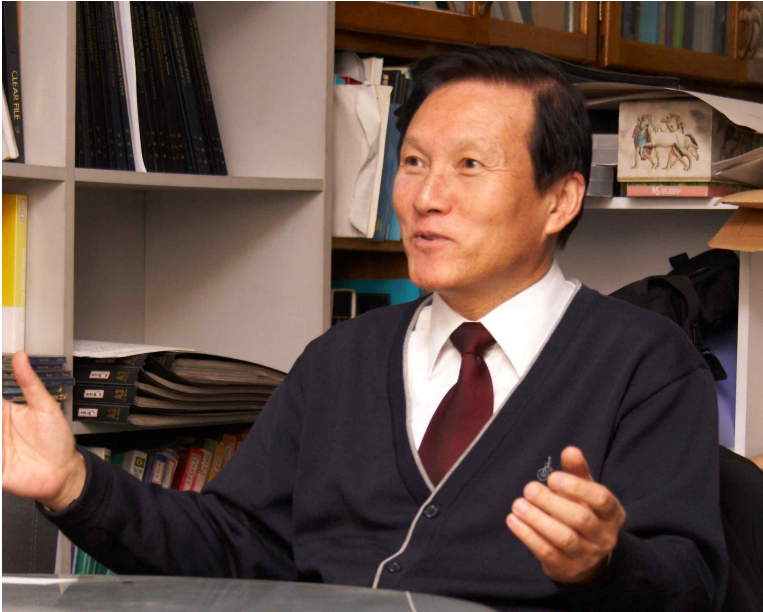
정인혁: 해부학 용어를 다듬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였어요. 백상호 교수가 회장일 때 용어집에 틀린 것이 많으니 고쳐서 내야겠다고 용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연령으로 볼 때 제가 낫 자리가 아니었는데 다른 분이 추천을 해 주셔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용어집을 봤더니 전부 일본 것 가져다가 쓰는데, 한자 용어를 우리말 소리로 쓰고 괄호 안에 한

자를 적은 일본식 한자 용어였어요. 일본 용어에서 한자가 없는 것은 우리도 우리말로 만들고, 그 정도로 모방을 했지요. 모방이 아니라 표절이라고 봐야지요.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선 전후좌우대소 같은 말을 앞, 뒤, 왼, 오른, 큰, 작은 하는 식으로 바꿨지요. 1990년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꾼 용어집이 나왔는데 이것이 뿌리가 되었지요. 해부학 용어가 의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의학계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에서 1992년에 『의학용어집』이 나왔는데, 우리 해부학 용어를 부분적으로 나열해 놓은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은 결과가 된 것이 2001년에 나온 『의학용어집』입니다.

장승욱: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인혁: 국립국어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같이 용어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밀바탕이 일본 용어인데다 한자에 우리 소리로 토만 달았기 때문에 소리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다예요.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소리만 듣고도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말들은 용어로 정착이 됐다고 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고쳐 가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의학용어집』에 수록된 용어가 5만 개가 넘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용어를 다 다듬는다면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른바 보수, 보수라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기존의 것을 바꾸는데 대한 저항감이라고 할까, 거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직도 대단히 심하지요. 적개심을 나타낼 정도로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일이 잘 추진돼 오다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말로 고치는 일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장승욱: ‘숨고르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인혁: 저는 그것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타가지고 달려라 달려라 하면 가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계속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브레이크가 되어 조심도 하게 되고 속도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실제 쓰임새와는 상관없이 우리말로만 바꾼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요.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 이제는 브레이크도 좀 밟고 하는 속도 조절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남북한 의학 용어 비교 작업도 하셨지요?

정인혁: 1992, 93년 무렵, 그때가 독일이 통일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지구상에 우리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꿈들을 많이 갖게 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한 의학 용어를 미리 비교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작업을 절터러 맡아달라고 해서 열걸에 맡게 되었지요.

장승옥: 용어집을 보니 ‘사구체(絲球體)’라는 말과 함께 ‘토리’라는 말을 채택했는데, 이런 말을 일반 의사들이 어느 정도나 쓰고 있습니까?

정인혁: 아마 거의 안 쓰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의사들이 새 용어를 알려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귀에 익지 않으니까 입에서도 잘 안 나오지요. 요즘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영성증’이라는 말을 만들어 함께 올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따져보면 ‘골다공증’은 틀린 말이에요.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뼈에 구멍이 많은 병’이 되는데, 뼈에 구멍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구멍 자체는 줄어들어요. 뼈가 영성해지고 구멍이 커지는 것이지요. 일본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그런데 ‘뼈영성증’이라고 하면 어떤 병인지 그대로 이해가 되지요. 이것도 잘 안 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 보니 많이 나와요.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토리콩팥염’을 쳐 보세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 콩팥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토리나 콩팥 같은 말에 저항감이 큰 것 같아요.

장승옥: 이런 말들이 의사들에게 널리 보급돼야 할 텐데,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정인혁: 의사들이 바뀌기보다는 일반인을 통해서 의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환자가 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의사가 모른다고 할 수 없거든요. 나는 영어 용어만 알아, 나는 일어 용어만 알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와서 “선생님, 나는 토리콩팥염이에요.” 이러면 의사도 그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직은 그렇게 될 자료 자체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1학년 때 해부학을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만 강의를 합니다. 영어 한 자도 안 쓰고 우리 용어, 새 용어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새 용어가 자꾸 귀에 익으면 점차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계통의 국가시험원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백상호 교수가

거기 원장을 하실 때, 새 용어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학장들을 모아 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첫째 해에는 옛날 용어를 쓰되 괄호 안에 새 용어를 넣고, 둘째 해에는 새 용어를 앞에 쓰고 괄호 안에는 옛날 용어를 넣는다, 셋째 해에는 새 용어만 쓴다. 그분이 이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렇게 3년을 한 다음 그만두셨는데, 후임자가 그 정책을 이어받아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늘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겠지요. 요즘 신문에 건강이나 의료 관련 지면들이 많은데 대개는 의사 얘기를 듣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신문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장승욱: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인혁: 사구체라는 말이 실뭉치라는 뜻인데, 토리가 얼마나 적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요새는 뜨개질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지 용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죽은 말도 아닌데 너무 낯설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름집을 전에는 농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양이 학술용어지 고름집이 뭐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여드름을 전에는 좌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여드름’은 뭐라고 했느냐면 ‘심상성 좌창’이라고 했어요. 여드름,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알기 쉬운 이름들이 많이 용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전에는 다 ‘두’라고 했지요. 또한 창자를 ‘장’이라고 하는데, ‘장’이라는 용어는 참 쓰기가 거북해요. 혼동하기가 쉬워서 의미 전달이 명확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창자로 해놨는데 의사들이 특히 여기에 저항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꾸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창자라고 하면 모를 사람도 없고 헛갈릴 위험도 없잖습니까.

장승욱: 의학 용어를 다듬는 작업이 물론 당위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지만

재미가 없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정인혁: 아뇨, 정말 하기 싫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가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사십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열의를 갖고 했습니다. 책 사서 보고, 그 책 저자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는 것이 귀찮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열을 내면서 토의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어요.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열 내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용어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전 판 책 임자, 이렇게 두 사람이 특별위원 자격으로 용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회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옛날 용어를 쓰자고 하고 저는 거기 대항하는 것이 일이다 보니 나가기가 싫어요. 자꾸 남들과 부딪치는 것이 싫어서. 옛날에는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 다 크고 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 말로 설득이 됩니까. 그분들이 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자꾸 가르쳐서 바뀌어 가게 해야지요.

장승옥: 아무래도 의학계에 계신 분들만의 작업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국어학자라든지 하는.

정인혁: 제가 이 일을 할 때는 목표가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적어도 소리로 의미 전달이 되게 바뀌 가는 작업이었는데, 국어학자가 오면 이 작업을 도와주는 해요. 그런데 국어학자라면서도 우리말이 낯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작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싸웠지요. 이를테면 자기 전공이 문법이면 자꾸 문법만 따지고 드는데, 새로운 말을 만드는데 문법만 따지고 있으면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하지요. 국어학자라면 우리말의 쓰임새를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용어들이 혹시 잘못됐다 해도 될 수 있으면 이게 이런 쓰임새 때문에 괜찮다 하는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이지 맞춤법 따지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게 임무냐, 아니면 대안을 내놓든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대드니 누군들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저라도 싫은 소리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국어학자의 주장을 따라가니 어쩔 수 없지요. 국어학자들에게만큼은 제가 예의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장승욱: 이 일을 해 오시면서 보람이 크셨지요?

정인혁: 이게 혼자 하는 일이 돼서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나왔구나 한다면 뿌듯함이나 보람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 일은 내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 일에 6년을 매달려 그 많은 사람들 만나서 싸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제 업적에 이 일은 한 줄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그래요. 대학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혼자 일이 아니니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 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학용 어집』 머리말에도 썼지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한번 그만둘까도 했어요. 이나마라도 나온 게 다행이지요. 개인적인 보람이나 성취감은 정말 없습니다.

장승욱: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정인혁: 혼자 하는 일이 차라리 쉬워요. 이 일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용어를 만드는 일이고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학회와 같이 해야 하는데, 40개의 학회가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학회의 절반쯤은 무반응이었고, 나머지 절반도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악착같이 반대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딪치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당연히 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요. 위원이 10명이었는데, 위원들이 일체감을 갖지 못하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나이, 전공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단합

대회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어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서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기간이었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말을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이나마 추진이 된 것이지요.

장승욱: 그 원칙과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혁: 그것은 꼭 우리나라 의학 용어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학 용어를 만들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동일입니다. 용어는 그 자체가 정보거든요. 그런데 한 개념에, 또는 한 구조에 용어가 여러 개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식 용어에서 우리말 용어로 가려니까 거기에 따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리로 의미 전달이 되게 한다, 그래서 쉬운 우리말로 하고, 불필요한 말들, 원래 우리말이 아닌 것들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성 면역 결핍’에서 ‘성(性)’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선천 면역 결핍’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성(性)’, ‘양(樣)’, ‘상(相)’, ‘적(的)’ 같은 말들이 거의 빠졌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는 것이지요. 일본 용어를 가져다 쓰니까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말을 지어 써야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잘 지어 놔도 처음 듣는 말이니 거부감이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저도 새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도 호응을 못 얻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 가운데 일부는 통일 원칙에는 좀 어긋나도 만들어서 사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시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콧속에 넣어 보면 비경(鼻鏡), 귓속에 넣어 보면 이경(耳鏡)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베개, 지우개 하는 식으로 우리말로 ‘보는 것’을 ‘보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 쓰임새가 이러니까 ‘보개’라는 말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위를 보면 위보개 하는 식으로 코보개, 귀보개, 눈보개라는 용어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개’라는 말을 만들어 놔지만 다 내시경이라고 하지 누가 ‘보개’라는 말을 쓰겠어

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부분적으로 쓰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말은 계속 쓰일지 몰라도 코보게, 귀보게는 쓰일 것 같아요. 비경, 이경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광복이 되고 만약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일본말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한문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거창하게 훈민정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중에 그냥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쓰임새를 얻게 되는 말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순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빙’을 ‘참살이’라고 바꿨는데 물론 잘 쓰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 말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쓸 겁니다. 그중 많은 말들이 일상화할 것입니다. 우리 용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승욱: 그렇지만 아무래도 ‘낮설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인혁: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의사고 박사고 교수면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제 나라 말의 어휘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 지식인 체면이라도 서지, 자기 어휘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인데 그것을 ‘낮설다’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하는 것이 바른 태도지, 내가 모르니까 이걸 안 된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용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저는 죽은 말도 살려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토의를 했는데, 저는 우리말 죽은 것들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다른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지 않게 죽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말들을 우리가 찾아 활용해야지 안 쓰인다고 해서

다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죽은 말을, 죽은 말이라기보다는 옛말인데, 다 쓰자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소리가 좋고 쓸 수 있는 것은 개발해서 쓰는 것이 괴상한 한자어나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옥: 2004년에 외솔상 실천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정인혁: 외솔 선생이 워낙 훌륭하고 우리말을 위해서 참 큰일을 많이하신 분이라 그 상은 제가 매우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는데 그 앞이 길어져서 제가 아주 짧게 했습니다. “제 나라에서 제 말을 열심히 썼다고 해서 상 주는 일이 다시는 없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끝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선진국에서 이런 일 가지고 상을 주는 일이 있겠어요?

장승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정인혁: 제가 정년이 4년 남았습니다. 제가 용어 일을 시작한 것이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또 학회 일도 맡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몸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 몸에 대한 해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 때까지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노동집약적이기도 하고, 유행을 떠난 비인기학과의 일이라 돈도 안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농담 삼아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에는, 그리고 사회에는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것,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해부를 해야 알 수 있는 한국사람의 신체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4년 동안 이 일을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정년 퇴임한 뒤에는 그동안 용어와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국어학자들이 못하는 일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말 쓰임새에 대해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가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승욱: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인혁: 감사합니다.